

## 2003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2003년 본 학회의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가 지난 4월 11일~12일 양일에 걸쳐 연세대학교의 연세공학원과 제3공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에는 등록인원이 학회 창립 이래로 최대인 1,020명이었고, 구두발표 137편과 포스터발표 585편 등 모두 72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회 첫째날인 금요일에 봄비가 내려, 등록장소를 연세공학원 건물 밖에 설치하여 화사한 봄날씨를 즐기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와는 어긋났으나 천정이 높게 설계된 연세공학원 건물덕에 비교적 쾌적한 상태로 등록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회는 발표회장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어 금요일에 포스터발표와 초청특별강연 및 총회가 개최되었고, 모든 구두발표는 토요일에 이루어졌다. 초청특별강연으로는 상암고분자상 수상자인 서울대학교 조원호 교수의 수상기념 강연과 일본고분자학회 회장인 Takeshi Endo 교수의 강연이 있었으며 61편의 특별강연과 74편의 일반구두발표가 11개 회장에서 발표되었다. 이번 학회의 특징으로는 특별 심포지움 위주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고분자합성, 고분자구조 및 물성, 고분자블렌드/가공/복합재료, 분자전자부품 및 의료용 고분자부품 이외에 7개의 특별 심포지움 (6T 기술과 고분자 정밀중합기술, 나노구조체의 제조와 응용, 자기조립분자 및 고분자막, Flexible Display, Bio MEMS/Photonics, 신기능 산업용 섬유)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요즘 관심을 끄는 분야인 Flexible Display와 나노구조체 분야에 많은 청중이 집중되었다. 이번 학회가 비교적 성황리에 진행된 것은 특별 심포지움의 확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특별 심포지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공통적인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들이 직접 발표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이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학술대회가 참신하며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특별 심포지움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총 11개의 회장에서 다수의 회장이 특별 심포지움으로 진행되다 보니 고분자합성, 고분자구조 및 물성 등의 기본분야와 기존의 부문위원회 발표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면이 나타나 앞으로 각 심포지움 조직 책임자와 부문위원회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포스터의 경우 585편의 포스터가 금요일에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동안 3회에 걸쳐 발표되었다. 포스터 발표의 경우 매년 겪는 문제이지만 이번 경우도 발표시간이 부족하여 관심있는 포스터를 보는데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발표장소가 좁아 어려움을 겪었다. 발표시간 및 장소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자의 허락없이 디지털카메라로 포스터 발표내용을 촬영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총회에서는 학회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으며 고분자학술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강용수박사가 수상하였으며, 기술상은 대한유화공업의 정영태박사가, 우수학위논문상으로는 류두열박사와 손지원박사가 수상하였다. 또한 조의환교수가 학회가 대학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어 학회진행에 어려움이 많은데 Convention Center를 사용하여 평일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사항은 매년 학회때마다 임원 및 운영이사진에 의해 검토되었으나 경비관계로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더욱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학술대회의 경우 전반적으로 발표논문의 질과 양이 예년에 비해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참가자의 의견이었다. 또한 규모가 커지는 학술대회에 걸맞게 보다 차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회일정과 학회장소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 참가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포지움 조직책임자 여러분과 학회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원만한 학회진행이 되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연세대학교의 한학수, 김중현 교수님과 학생도우미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학술이사 조길원>

